

## **Questions and Answers with Philippe Cousteau Jr.**

Explorer, social entrepreneur and environmental advocate, Philippe Cousteau Jr., serves as Chief Spokesperson for USA Pavilion 2012. Philippe and his multi-disciplinary team are partnering with the U.S. Department of State to design, build and operate the USA Pavilion experience at Expo 2012. Philippe is the 32-year-old son of Jan and Philippe Cousteau Sr., and the grandson of Captain Jacques-Yves Cousteau.

### **How did you become involved with the USA Pavilion 2012?**

I'm co-founder of both an educational non-profit organization focused on youth engagement called EarthEcho International and a consulting company focus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esign called Azure Worldwide. This seemed like a perfect opportunity to utilize the strengths of our teams and help engage people in the future of our ocean and coastal environments. We applied and were thrilled and honored to be selected.

### **What excites you most about World Expo 2012 and the USA Pavilion?**

One of the main reasons my team and I wanted to be involved in the project is the opportunity to engage people in understanding the vital connection betwee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cultures and communities worldwide and the future of one of our most important resources: the ocean. The World Expo Committee and our friends and partner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created an amazing opportunity for us to shine a spotlight on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our ocean resources with the Expo theme of The Living Ocean and Coast. I see the World Expo and the USA Pavilion as a unique opportunity to bring people together to create a brighter future.

I'm also looking forward to visitor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being introduced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our wonderful Student Ambassadors. Forty American college students representing a wide range of backgrounds and perspectives from across the United States will guide visitors through the USA Pavilion experience. The Student Ambassadors program is a great opportunity to engage in diplomacy on a person-to-person level with individuals from around the world.

### **What makes the USA Pavilion experience unique?**

I approach my work with youth and the media much as my grandfather and father did; as a storyteller. The USA Pavilion is storytelling on a grand scale. I'm very excited about the multi-dimensional environment the USA Pavilion team has created to immerse people in the story of America's ocean environments and coastal communities. Through the unifying themes of Diversity, Wonder and Solutions, the USA Pavilion will share the hopes of the American people with visitors around the globe. From a massive screen created entirely from water, to the voices and faces of Americans from across the country, visitors will discover the core values of innovation, partnership and hope that define the American spirit. The USA Pavilion is an opportunity to share our story and connect with people on a personal level.

**What in your view are the most urgent issues facing the ocean and coastal environments globally?**

Now more than ever, we are at a cross roads when it comes to the future of the ocean and the critical resources it provides to each and every person on the planet, from the air we breathe to the food we eat. Overfishing,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are creating challenges at an accelerated rate that require nations and people worldwide to work together to find better ways to manage and protect our ocean resources. The good news is we have the technology and scientific knowledge to address these issues. Now it's a matter of finding the best ways to work together and the will to take action to create a better world for generations to come.

**What do you want visitors to the USA Pavilion to take away from their experience?**

I want people to be hopeful when they leave the USA Pavilion. Hope and the realization that we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to create solutions to the challenges facing our planet and our future are the most important messages visitors can take away from their experience. We hope they walk away with an understanding that each and every one of us has a responsibility to take action to build a sustainable future for our children.

**What would your grandfather and father think about the World Expo theme of "The Living Ocean and Coast" and your role in the USA Pavilion?**

My grandfather Jacques Yves-Cousteau opened the world's eyes to the wonders of the ocean, while my father Philippe Cousteau, Sr. helped us understand our relationship to the natural world through his work as a filmmaker. I imagine they would be as excited as I am to engage millions of people in the story of our ocean and coastal environments in such a dynamic and memorable way.

Media Contacts:

Bryan Hughes  
+1 202-870-1818  
[bryan@goodpronline.com](mailto:bryan@goodpronline.com)

Denise Godoy  
+1 678-640-7651  
[denise@goodpronline.com](mailto:denise@goodpronline.com)

## 필립 쿠스토와의 일문일답

탐험가이자 사회적 기업가, 환경 운동가인 필립 쿠스토 2 세는 2012 미국 전시관 수석대변인(Chief Spokesperson)을 맡고 있다. 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과 함께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이번 여수세계박람회에서 미국 전시관의 설계와 시공,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필립은 올해 32 세로 자크 이브 쿠스토의 손자이며 필립 쿠스토 1 세와 잔 쿠스토 사이에서 태어났다.

### 어떤 계기로 2012 미국 전시관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나는 현재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모색하는 비영리 교육 단체인 어스에코 인터내셔널(EarthEcho International),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설계에 주력하는 컨설팅업체인 애쥬어 월드와이드(Azure Worldwide)의 공동 설립자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조직의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바다와 연안의 미래에 대한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참가를 신청했고 이렇게 선정된 것에 대해 흥분감을 느끼고 있으며 영광으로 생각한다.

### 여수세계박람회와 미국 전시관의 어떤 측면에 가장 관심이 있는가?

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반인들이 전세계 문화와 공동체의 건강함과 복지, 그리고 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바다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직위원회를 비롯한 한국 내 지인과 파트너들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바다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조망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 여수세계박람회와 미국 전시관은 인류가 힘을 합쳐 보다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이 대학생 홍보대사들을 통해 미국에 대해 알게 되기를 희망한다. 다양한 출신 배경과 시각을 대표하여 미국 전역에서 선발된 대학생 40 명이 미국 전시관 안내를 담당할 예정이다.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은 세계인을 상대로 인적 교류를 통한 외교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 **미국 전시관의 차별화된 특징은 무엇인가?**

나는 내 조부와 부친이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꾼으로서 젊음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작업한다. 미국 전시관은 거대한 규모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는 관람객들을 미국의 바다 환경과

연안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기 위해 미국 전시관 제작진이 구현한 다차원 공간에 대해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전시관은 ‘다양성, 경이로움, 해결책(Diversity, Wonder and Solutions)’이라는 주제를 통해 미국인의 희망을 전세계 관람객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전체가 물로 구성된 대형 스크린에서 미국 전역에서 수집한 시민들의 음성과 얼굴에 이르기까지 관람객들은 미국의 정신을 정의하는 혁신과 파트너십, 희망의 가치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미국 전시관은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기회를 제공한다.

### **지구상에서 바다와 연안 환경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바다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먹거리에 이르기까지 바다가 전인류에게 제공하는 소중한 자원에 관한 한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수자원 남획, 공해, 기후변화는 빠른 속도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세계 각국 정부와 주민들이 해양 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과학적 지식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제 관심사는 최선의 협력 방안과 더불어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한 실행 의지를 어떻게 강구하느냐는 것이다.

### **미국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무엇을 얻어 가기를 바라는가?**

관람객들이 미국 전시관을 나설 때 가슴 속에 희망을 품기를 원한다. 협력을 통해 지구와 인류의 미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인식과 희망이야말로 미국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얻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관람객들이 전시관을 떠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행동에 나설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희망한다.

귀하의 조부와 부친은 귀하가 미국 전시관에서 맡은 역할이나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조부인 자크 이브 쿠스토는 인류가 경이로운 바다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만들었고 부친인 필립 쿠스토 1 세는 영화 제작을 통해 세계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왔다. 두 분 역시 이처럼 역동적이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수백만 명에게 바다와 연안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흥분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한다.